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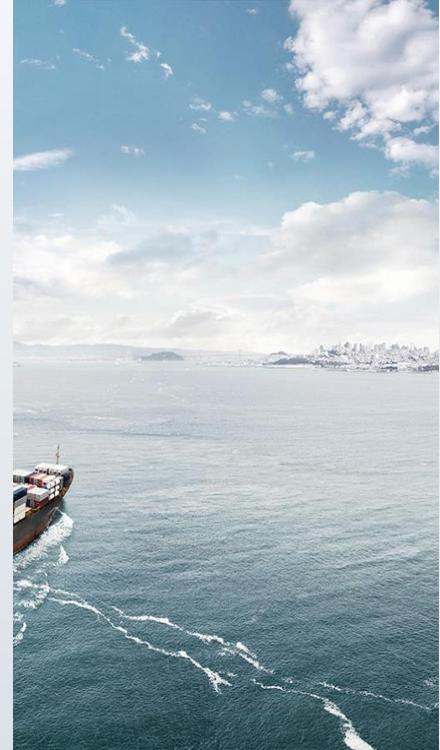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453

May 23, 2023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 | |
|--------------------------|----|
| News | 1 |
| Bulk Carrier | 6 |
| Tankers | 10 |
| + Container Sales Report | |
| Demolition | 14 |
| Key Indicators | 17 |
| Issue & Trend | 19 |
| Contact Details | 20 |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 NEWS

1. EU 따라가는 美...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크' 중요도 커져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이 아닌 '디리스크(DE-RISKING·위험 제거)'에 방점을 두고 있다. 무역전쟁으로 중국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 아닌, 디커플링 범위를 축소·집중해 '중국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27 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워싱턴 DC 에 있는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대담에서 "우리는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크'를 추구한다는 입장에서 유럽의 주요 지도자들과 수렴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디리스크는 근본적으로 탄력적이고 효과적인 공급망을 보유하고, 다른 국가의 강압에 종속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역을 중단하기보다는 군사 균형을 위협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등 목표를 좁게 잡는다"며 "이것(디리스크)은 맞춤형 조치"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작한 미중 간 무역전쟁은 디커플링으로 번졌는데, 재계에서는 전면적인 디커플링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왔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전 정부처럼 전면적으로 중국과 멀어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온건한 디리스크를 통해 중국과 화해를 모색하면서도 위험 관리를 꾸준히 해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군사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거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민감한 기술 분야 등에서만 '선택적'으로 중국과 이별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점차 매파적 색채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대중 입장을 우려하고 있는 유럽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외교안보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진단했다.

대표적인 예시가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칩 생산에 규제를 강화해 왔다. 지난 10 월부터 첨단 반도체나 관련 제조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중국에 판매할 특정 칩을 미국산 장비로 제조하기 위해서는 미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 중국 기업이 '미검증 명단'에 올라 잠정적인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미검증 명단에 오른 기업은 리스트에 오른 이후 60 일 검증 과정에서 자사 제품이

I . NEWS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셈이다.

이 밖에도 서방과 중국은 인권·민주주의 문제에서도 척을 쳐 왔지만, 미국은 중국에서 완전히 등을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부문에 대한 핀셋 제재로 대응했다. 일례로 중국은 2021년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로 서방과 갈등을 빚고 있다. 다만 미국은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을 통해 신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경우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대중 정책으로 '디리스킹'을 강조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중국과 분리하는 것은 실행 가능하지도 않고 유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도 않는다"며 디리스킹을 대중 관계의 기본 전략으로 삼았다. EU 역시 꼭집어 신장 위구르족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강제노동 제품에 대한 자체적인 금지안을 제시했다.

전략 자문회사인 알브라이트 스톤브릿지 그룹의 수석 고문이자 중국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 소장, 중국 주재 미국 총영사 등을 지낸 켄 자렛은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노출을 재조정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며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상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후 미국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을 포기한 경험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막강한 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처럼 대만 문제가 불거질 경우 러시아에 그랬듯 중국에서 완전히 등을 돌릴 수 없고, 디리스킹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렛은 "우리가 전면적인 디커플링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며 "선택적 디커플링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민감한 기술 분야에서 이미 그러한 현상을 목격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받아들이기엔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이 크게 다를 게 없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미국과 EU의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 조치는 중국의 반발심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중 견제책(디커플링)과 자국 보호안(디리스킹)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암묵적으로 반도체 제재에 동참하기를 요구하면서 중국의 반발을 불렀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미국 반도체 메모리칩 생산회사인 마이크론의 판매금지를 검토하는

I . NEWS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이 마이크론이 중국의 제재를 받을 경우 그 빈자리를 한국 반도체 기업이 채우지 말아 달라고 한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차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들 조치로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 기업 목록에 오른 YMTC 등의 중국 본토 공급업체들만 수혜를 입게 됐다고 보도했다.

2. 부산항 1분기 '컨'물동량 세계 6위

부산항이 올 1분기 전 세계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에서 6위 자리를 유지했다.

한국해운신문이 올해 전 세계 주요 컨테이너항만의 1~3월 누적 물동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부산항이 지난해 6위였던 광저우항을 제치고 6위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부산항은 전년 동기(559만 TEU)에 비해 약 1% 증가한 539만 9천 TEU를 처리했다. 올들어 부산항은 1월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한 183만 3801TEU를 처리하며 5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됐으나 2월 들어 0.75% 증가한 175만 5959TEU를 처리하는 등 반등에 성공했고, 3월 들어서는 205만 TEU를 처리하면서 전년 대비 9.3% 물동량이 급등, 전년 대비 누적 물동량 증가율 역시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부산항에 이어 7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전년도 6위 광저우항의 경우 1분기 561만 TEU를 처리하는 등 부산항과의 물동량 격차가 불과 3만 TEU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순위는 조만간 뒤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광저우항은 중국 춘절 연휴 및 해무 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중국 항만들의 연초 처리량 실적이 저조한 까닭에 1분기 간발의 차로 부산항에 순위가 밀렸으나 3월 들어서만 214만 TEU를 처리하는 등 물동량이 본궤도에 오른 모습이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광저우항은 1월과 2월을 제외하고는 매달 200만 TEU가 넘는 컨테이너를 처리했을 만큼 부산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월간 컨테이너 물동량을 기록해왔다.

반면 부산항의 강력한 순위 경쟁자로 떠오른 중국의 천진항의 경우 연초 중국 항만들의 부진이 무색하게 올 2월까지 309만 TEU를 처리하며 전년 대비 8.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데 이어 3월에는 196만 TEU를 처리하며 1분기 물동량 증가율이 외려 전년 대비 9%로 늘었다. 지난해 근소한 차이로

I . NEWS

막판까지 부산항과 치열한 순위싸움을 전개해 온 천진항이기 때문에 이같은 1분기 증가세가 향후 부산항과의 경쟁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편 전 세계 주요 항만의 올 1분기 컨테이너 물동량을 살펴보면 연초 부진에서 벗어나 차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상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항만들의 경우 엔데믹 전환으로 인한 중국 리오프닝 등으로 3월 물동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향후 전망을 밝게 했다.

먼저 부동의 1위인 중국 상해항의 경우 1분기 전년 대비 6.4% 감소한 1177만 TEU를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해항은 2월까지 8.6% 감소한 746만 TEU를 처리하는데 그치며 부진했지만 3월 402만 TEU를 처리하며 물동량 감소율을 다소 끌어내리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지난해 3월 처리량(410만 TEU)에 비하면 아직까지 완벽히 회복했다고는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일각에서는 글로벌 물류대란 등으로 인한 공급망 다변화로 인해 향후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심천항 역시 상해항과 마찬가지로 3월 226만 TEU를 처리하며 1·2월 부진을 3월에 다소 만회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난해의 실적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심천항은 1분기 들어 전년 대비 4.9% 감소한 617만 TEU의 처리량을 기록하며 청도항에 밀린 5위를 기록했다.

반면 3위인 닝보-저우산항, 4위인 청도항은 광저우항과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며 순항하고 있다. 닝보-저우산항은 1분기 총 819만 TEU를 처리, 전년 대비 3.5%의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특히 같은 기간 청도항은 12.2% 증가한 662만 TEU를 처리하며 상위 항만 가운데 가장 높은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 지난해 4위였던 심천항을 약 45만 TEU 차이로 제치고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2위인 싱가포르항은 1분기 900만 9000TEU를 처리, 전년 대비 0.74% 감소했으며, 한때 전 세계 1위를 호령했던 홍콩항의 경우 7.7% 감소한 341만 9천 TEU로 상위 항만 중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 이대로라면 10위권도 위태로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나이지리아, 아프키라 최대 정유공장 가동...석유시장 '게임체인저' 부상

나이지리아의 무하마두 부하리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에너지가 풍부한 나이지리아가 자급자족하고 정제된 석유 제품의 순수 수출국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정유 공장을 열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I . NEWS

아프리카 최고 부호인 나이지리아 재벌 출신 알리코 단고테가 나이지리아의 경제 중심지 라고스에 건설한 190 억달러(약 25 조원) 규모의 시설은 세계 최대 정유공장 중 하나로 하루 65 만 배럴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나이지리아의 석유 및 천연 가스 부문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반면, 다른 분석가들은 석유 도난으로 인해 용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한다.

나이지리아의 국영 정유공장 대부분은 정비 상태가 좋지 않고 가동 능력이 훨씬 낮다. 서아프리카 국가는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제된 석유 제품을 수입해야 한다.

새 정유공장은 "우리나라의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세계 시장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단고테는 말했다.

단고테는 정유공장이 7 월 말 이전에 가동을 시작할 것이며 비료 공장과 나란히 435 메가와트의 발전소로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산능력을 최대화하면 그곳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의 최소 40%를 수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나이지리아에 상당한 외환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고테는 "올해 우리가 수입 의존의 비극을 없애고 독성이 있는 표준 이하의 휘발유 제품 시장에서의 모든 덤핑을 중단할 수 있도록 더 높은 품질의 제품에 대한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생산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이 정유공장이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외에도 일부 정유공장이 생산능력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전역의 연료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나이지리아가 대규모 석유 절도와 싸우고 최근 몇 달 동안 원유 생산량이 수십 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정부 수익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중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돼 정유 공장의 생산량도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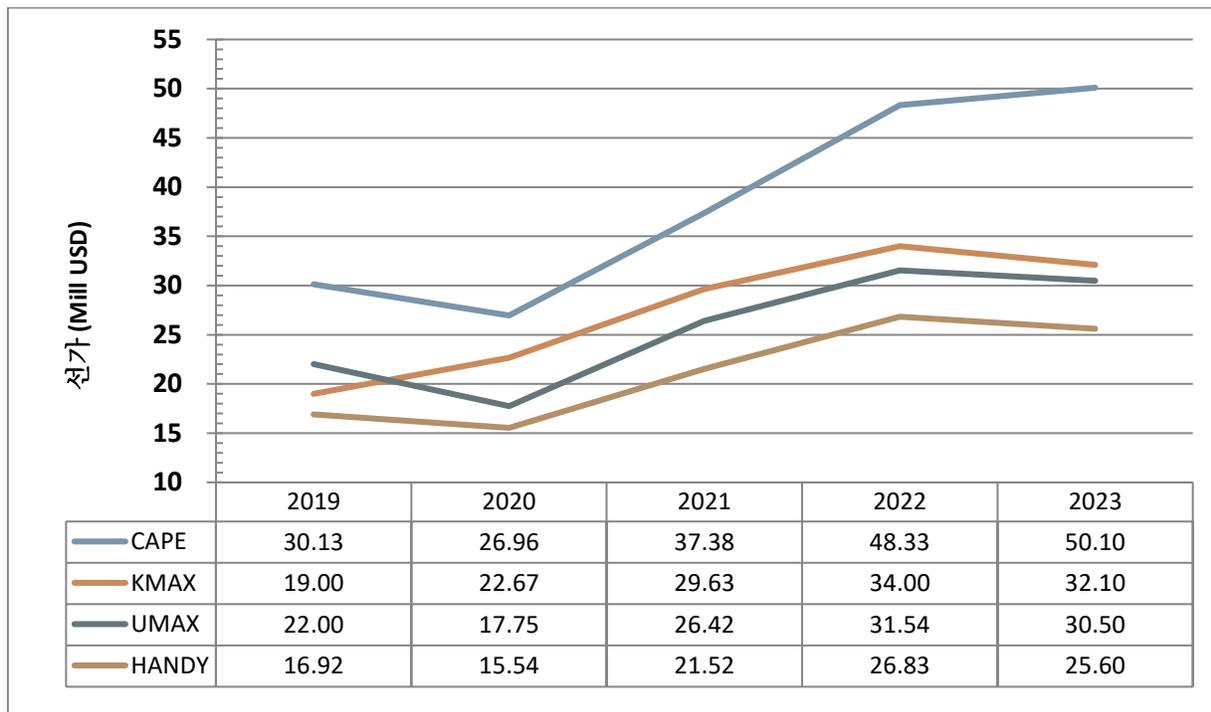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

| 연평균 선가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Capesize 180K | 30.13 | 26.96 | 37.38 | 48.33 | 50.10 |
| <small>*Eco-design based since 2021</small> | -14.34% | -10.51% | 38.64% | -- | 3.66% |
| Kamsarmax 82K | 19.00 | 22.67 | 29.63 | 34.00 | 32.10 |
| <small>*76k before 2020</small> | 0.42% | 19.30% | 30.70% | 14.75% | -5.59% |
| Ultramax 60-61K | 22.00 | 17.75 | 26.42 | 31.54 | 30.50 |
| | -- | -19.32% | 48.83% | 19.40% | -3.30% |
| SMAX 58K | 17.17 | 15.92 | -- | -- | -- |
| <small>*Data available before 2021</small> | -4.20% | -7.28% | -- | -- | -- |
| Handysize 37K | 16.92 | 15.54 | 21.52 | 26.83 | 25.60 |
| | 12.18% | -8.13% | 38.47% | 24.69% | -4.60% |

□ BC 연평균 선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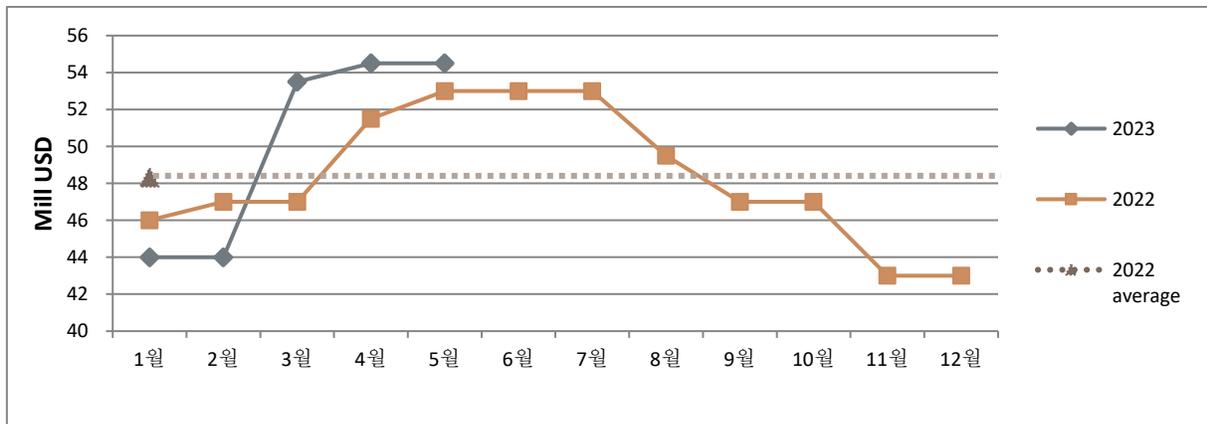


II . BULK CARRIER

| 2023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평균 |
|-------------------------|------|--------|--------|-------|-------|--------|----|-------|
| CAPE (180K, Eco.) | 선가 | 44.00 | 44.00 | 53.50 | 54.50 | 54.50 | | 50.10 |
| | 전월대비 | 2.3% | 0.0% | 21.6% | 1.9% | 0.0% | | -- |
| | 전년대비 | -4.3% | -6.4% | 13.8% | 5.8% | 2.8% | | 3.7% |
| KMAX (82K) | 선가 | 30.00 | 30.00 | 32.50 | 34.00 | 34.00 | | 32.10 |
| | 전월대비 | 0.0% | 0.0% | 8.3% | 4.6% | 0.0% | | -- |
| | 전년대비 | -11.8% | -13.0% | -8.5% | -6.8% | -10.5% | | -5.6% |
| UMAX (60-61K) | 선가 | 28.50 | 28.50 | 31.50 | 32.00 | 32.00 | | 30.50 |
| | 전월대비 | 1.8% | 0.0% | 10.5% | 1.6% | 0.0% | | -- |
| | 전년대비 | -6.6% | -12.3% | -4.5% | -5.9% | -5.9% | | -3.3% |
| HANDY (37K) | 선가 | 24.50 | 24.50 | 26.00 | 26.50 | 26.50 | | 25.60 |
| | 전월대비 | 4.3% | 0.0% | 6.1% | 1.9% | 0.0% | | -- |
| | 전년대비 | -10.9% | -12.5% | -7.1% | -7.0% | -7.0% | | -4.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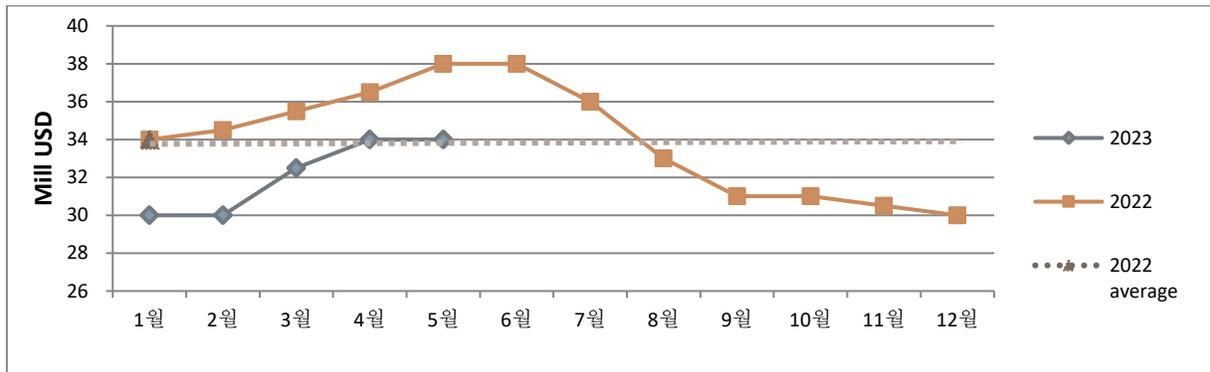
| 2022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평균 |
|-------------------|-------|-------|-------|-------|-------|-------|-------|
| CAPE (180K, Eco.) | 46.00 | 47.00 | 47.00 | 51.50 | 53.00 | 53.00 | 48.33 |
| KMAX (82K) | 34.00 | 34.50 | 35.50 | 36.50 | 38.00 | 38.00 | 34.00 |
| SMAX (58K) | 30.50 | 32.50 | 33.00 | 34.00 | 34.00 | 34.50 | 31.54 |
| HANDY (37K) | 27.50 | 28.00 | 28.00 | 28.50 | 28.50 | 28.50 | 26.83 |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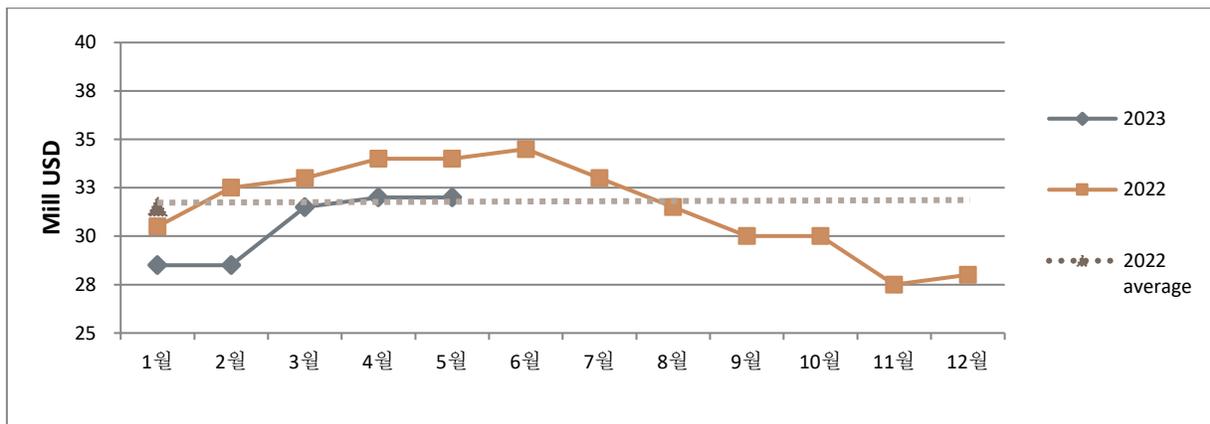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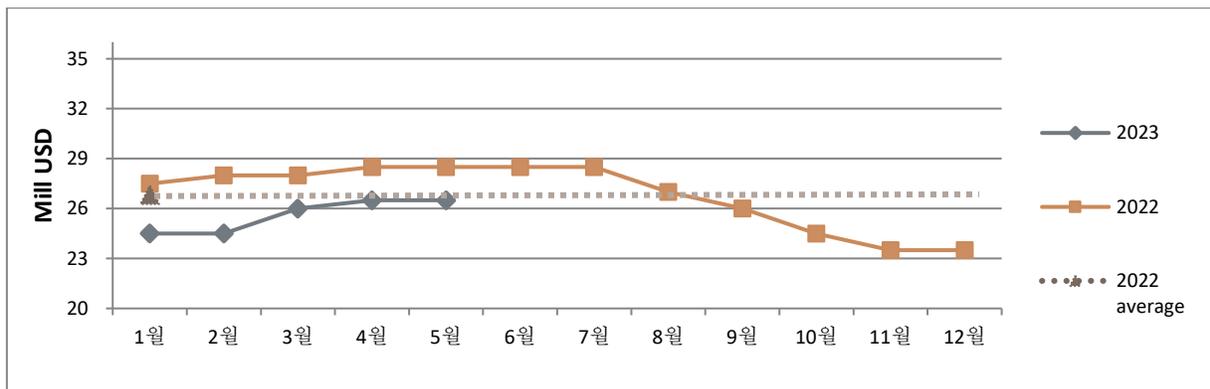
□ Kamsarmax



□ Ultramax & Supramax



□ Handy



II . BULK CARRIER

Bulk Carrier Sales Report

| TYPE | VESSEL | DWT | BLT | YARD | M/E | GEAR | PRICE | REMARKS |
|------|-----------------|---------|------|-------|------|---------|-------|-------------------------------|
| BC | MINERAL NINGBO | 178,120 | 2009 | CHINA | B&W | | 23.8 | Chinese buyer |
| BC | BAO MAY | 178,050 | 2010 | CHINA | B&W | | 25.5 | Far Eastern buyer |
| BC | BERGE CRISTOBAL | 177,253 | 2003 | JAPAN | B&W | | 13 | Undisclosed buyer |
| BC | CIC ELLI S | 171,448 | 2003 | KOREA | B&W | | -- | UAE based buyer (Lila Global) |
| BC | XIN HAN | 82,297 | 2012 | CHINA | B&W | | 20 | Greek buyer (Capital) |
| BC | DAXIA | 56,811 | 2011 | CHINA | B&W | C 4x36t | 14 | Undisclosed buyer |
| BC | ELLA | 52,454 | 2003 | JAPAN | B&W | C 4x30t | 9.7 | Undisclosed buyer |
| BC | GREAT WENJIE | 50,777 | 2002 | JAPAN | SULZ | C 4x30t | 7.5 | Undisclosed buyer |
| BC | IONIC HAWK | 34,067 | 2012 | KOREA | B&W | C 4x30t | 16.2 | Greek buye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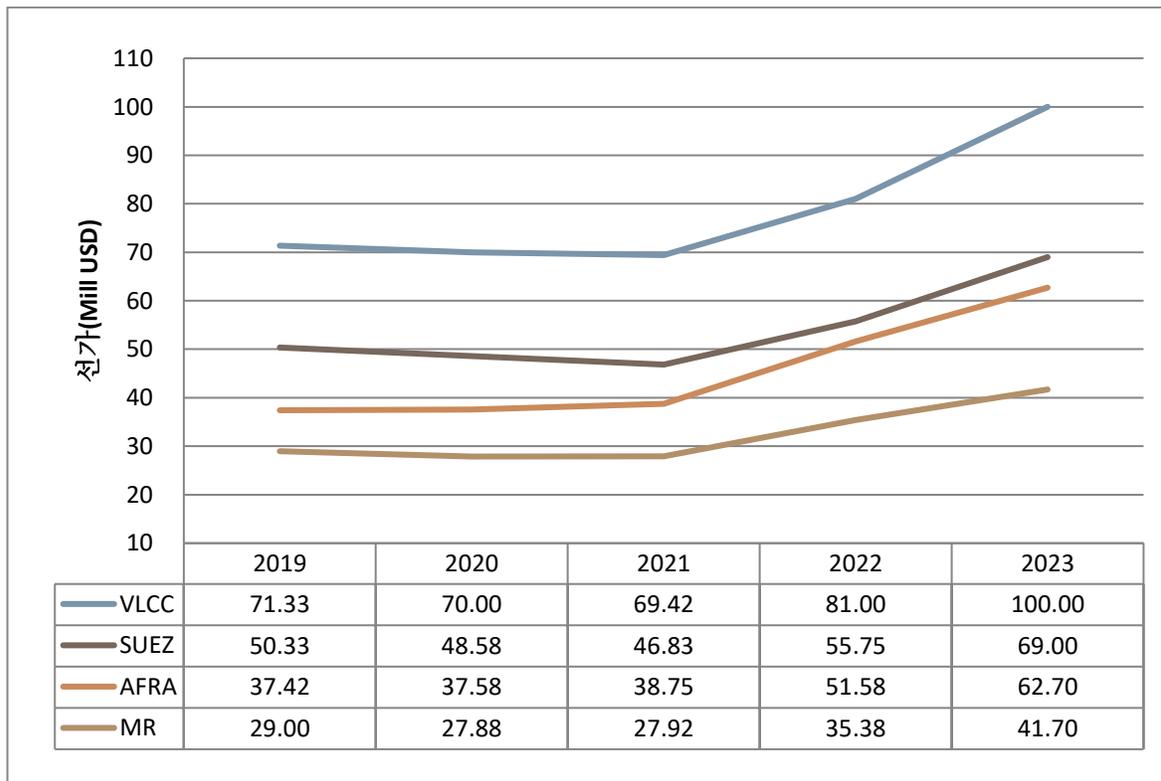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VLCC (310K) | 71.33 | 70.00 | 69.42 | 81.00 | 100.00 |
| | 10.73% | -1.87% | -0.83% | 16.69% | 23.46% |
| Suezmax (160K) | 50.33 | 48.58 | 46.83 | 55.75 | 69.00 |
| | 15.60% | -3.48% | -3.60% | 19.04% | 23.77% |
| Aframax (105K) | 37.42 | 37.58 | 38.75 | 51.58 | 62.70 |
| | 17.85% | .45% | 3.10% | 33.12% | 21.55% |
| MR (51K) <small>*Based on 49K till 2018</small> | 29.00 | 27.88 | 27.92 | 35.38 | 41.70 |
| | 9.43% | -3.88% | .15% | 26.72% | 17.88% |

□ TANKER 연평균 선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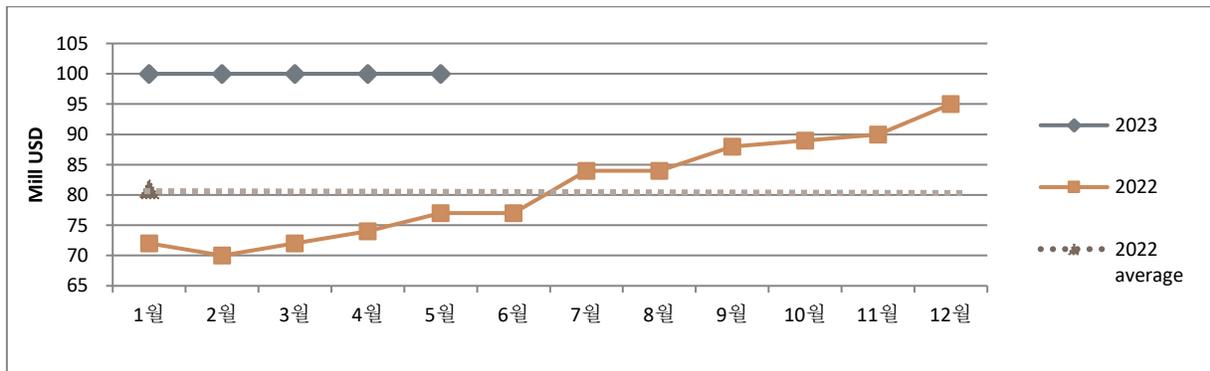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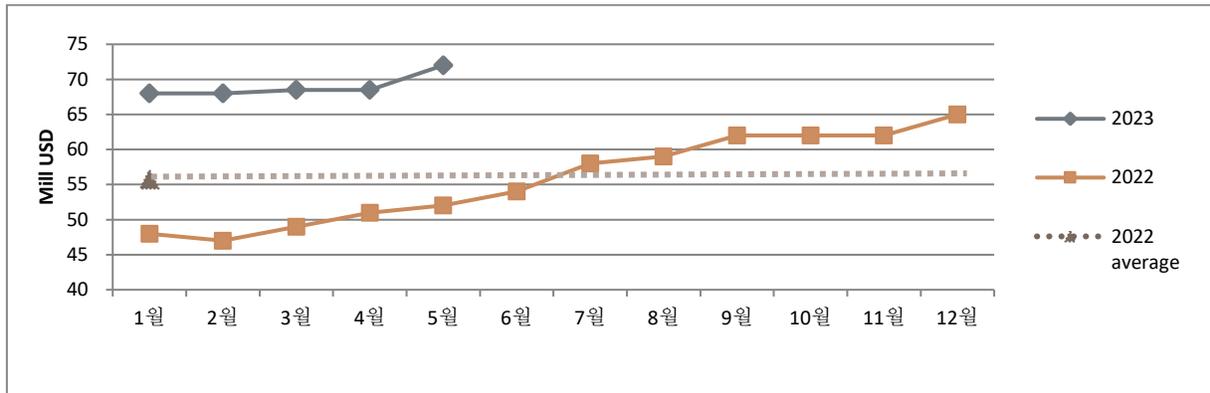
| 2023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평균 |
|--------------|------|--------|--------|--------|--------|--------|-------|----------|
| VLCC 310K | 선가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100.00 |
| | 전월대비 | 5.3% | 0.0% | 0.0% | 0.0% | 0.0% | | - |
| | 전년대비 | 38.9% | 42.9% | 38.9% | 35.1% | 29.9% | | 23.5% |
| SUEZ 160K | 선가 | 68.00 | 68.00 | 68.50 | 68.50 | 72.00 | | 69.00 |
| | 전월대비 | 4.6% | 0.0% | 0.7% | 0.0% | 5.1% | | - |
| | 전년대비 | 41.7% | 44.7% | 39.8% | 34.3% | 38.5% | | 23.8% |
| AFRA 105K | 선가 | 62.50 | 62.50 | 62.50 | 62.50 | 63.50 | | 62.70 |
| | 전월대비 | 4.2% | 0.0% | 0.0% | 0.0% | 1.6% | | - |
| | 전년대비 | 38.9% | 38.9% | 38.9% | 33.0% | 29.6% | | 21.6% |
| MR 51K | 선가 | 41.50 | 41.50 | 41.50 | 42.00 | 42.00 | | 41.70 |
| | 전월대비 | 3.8% | 0.0% | 0.0% | 1.2% | 0.0% | | - |
| | 전년대비 | 38.3% | 38.3% | 43.1% | 29.2% | 25.4% | | 17.9% |
| 2022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1year 평균 |
| VLCC | | 72.00 | 70.00 | 72.00 | 74.00 | 77.00 | 77.00 | 81.00 |
| SUEZ | | 48.00 | 47.00 | 49.00 | 51.00 | 52.00 | 54.00 | 55.75 |
| AFRA | | 45.00 | 45.00 | 45.00 | 47.00 | 49.00 | 49.00 | 51.58 |
| MR | | 30.00 | 30.00 | 29.00 | 32.50 | 33.50 | 33.50 | 35.38 |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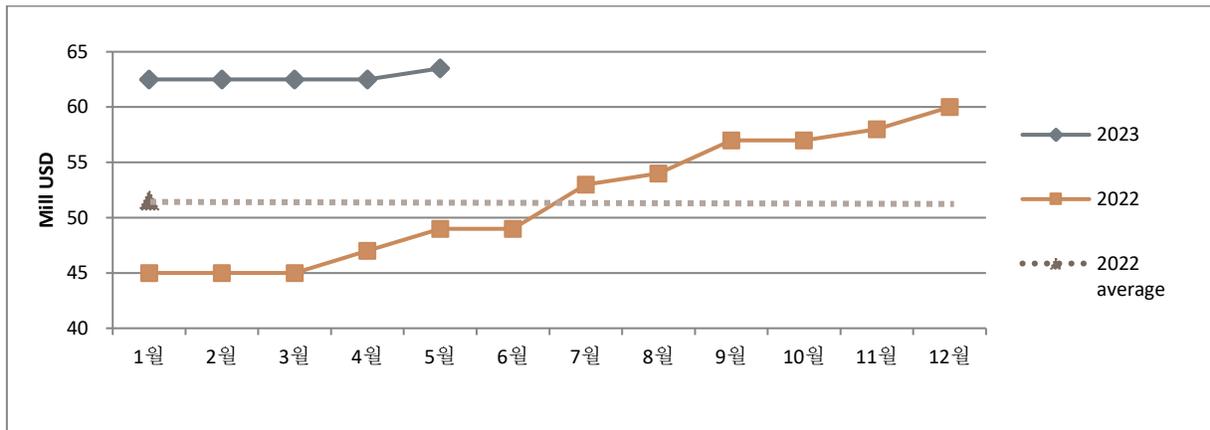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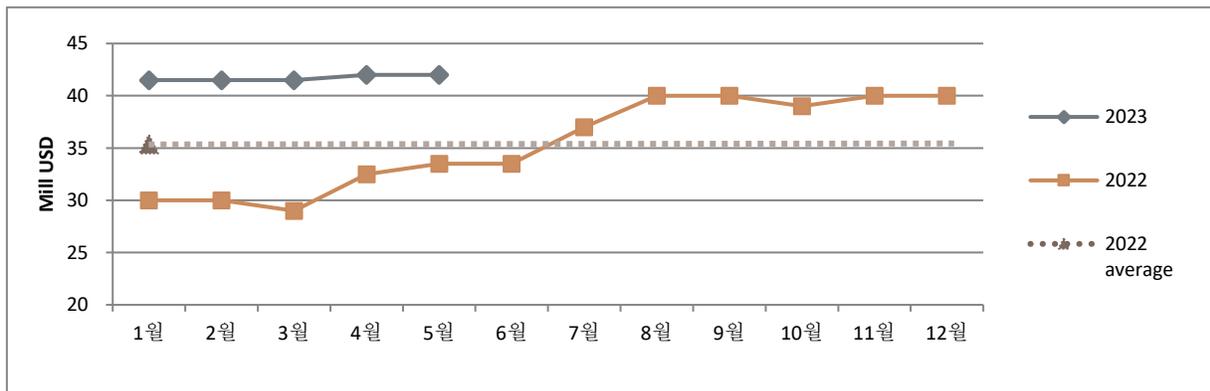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51K



III. TANKER

Tanker Sales Report

| TYPE | VESSEL | DWT | BLT | YARD | M/E | IMO | PRICE | REMARKS |
|--------|----------------|---------|------|-------|-------|-----|----------|--------------------------------------|
| TANKER | WONDER MUSICA | 106,290 | 2004 | KOREA | B&W | | 30 | Indonesian buyer, DPP |
| TANKER | SEA HAZEL | 106,085 | 2004 | JAPAN | B&W | | 30 | Middle Eastern buyer |
| TANKER | GULF CRYSTAL | 74,999 | 2009 | KOREA | B&W | | 29.5 | Undisclosed buyer, epoxy coated |
| TANKER | GULF COAST | 74,999 | 2005 | KOREA | B&W | | | |
| TANKER | GULF HORIZON | 74,999 | 2005 | KOREA | B&W | | 61.2-3EB | Undisclosed buyer, epoxy coated, CPP |
| TANKER | GULF PEARL | 74,999 | 2005 | KOREA | B&W | | | |
| TANKER | EASTERN QUINCE | 41,397 | 2009 | KOREA | B&W | | 22 | European buyer, epoxy coated, DPP |
| CHEM | FORTITUDE | 19,997 | 2004 | JAPAN | MITSU | 2&3 | 14.8 | Undisclosed buyer, stst |

CONTAINER, REEFER, ETC.

| TYPE | VESSEL | DWT | BLT | YARD | M/E | CAPA | UNIT | PRICE | REMARKS |
|------|---------------|---------|------|---------|------|------|------|-------|------------------------------|
| CONT | ARTHUR MAERSK | 109,000 | 2003 | DENMARK | SULZ | 8272 | TEU | -- | |
| CONT | ARNOLD MAERSK | 109,000 | 2003 | DENMARK | SULZ | 8272 | TEU | -- | UK buyer (Global Ship Lease) |
| CONT | ANNA MAERSK | 109,000 | 2003 | DENMARK | SULZ | 8272 | TEU | -- | |
| CONT | AXEL MAERSK | 109,000 | 2003 | DENMARK | SULZ | 8272 | TEU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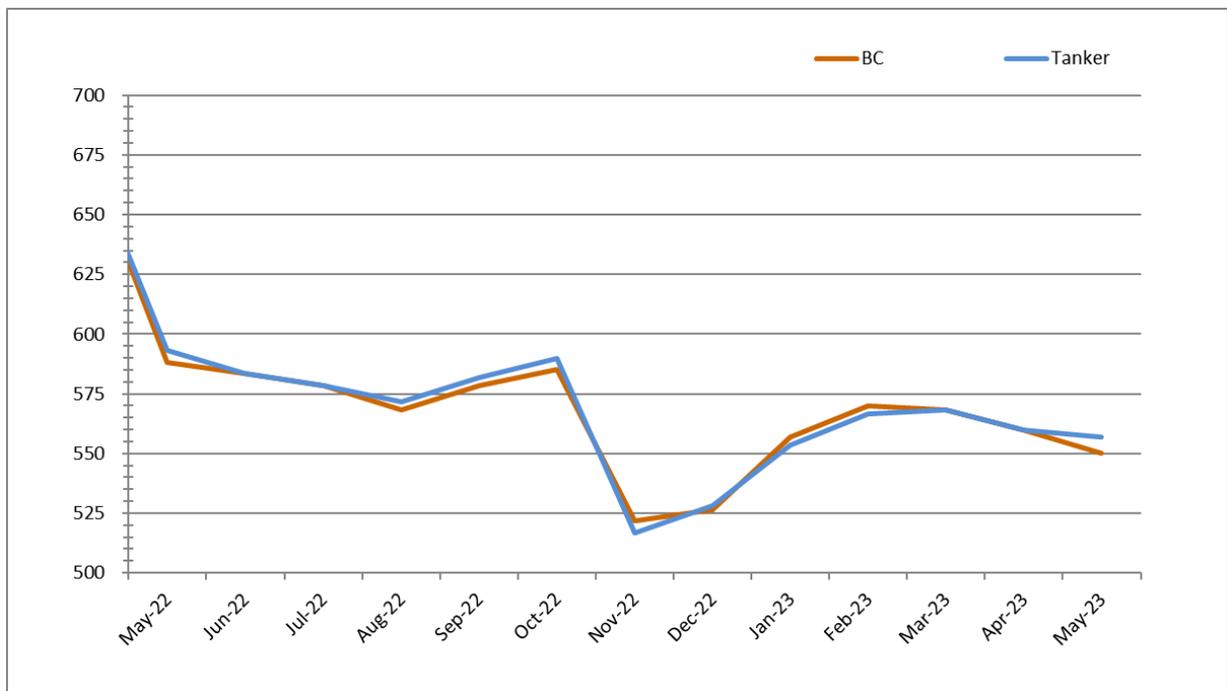


IV. DEMOLITION

1) 해체선가

| | 2021 Average | | 2022 Average | | 2023 Average | | 2022 May | 2023 May | | |
|--------|--------------|-------|--------------|-------|--------------|-------|----------|----------|-------|-------|
| | USD/LDT | YoY | USD/LDT | YoY | USD/LDT | YoY | USD/LDT | USD/LDT | MoM | YoY |
| TANKER | 526.81 | 52.9% | 590.28 | 12.0% | 561.00 | -5.0% | 593.33 | 556.67 | -0.6% | -6.2% |
| BC | 529.17 | 53.6% | 588.56 | 70.8% | 561.00 | -4.7% | 588.33 | 550.00 | -1.8% | -6.5% |

❖ 기준 : 인도 해체선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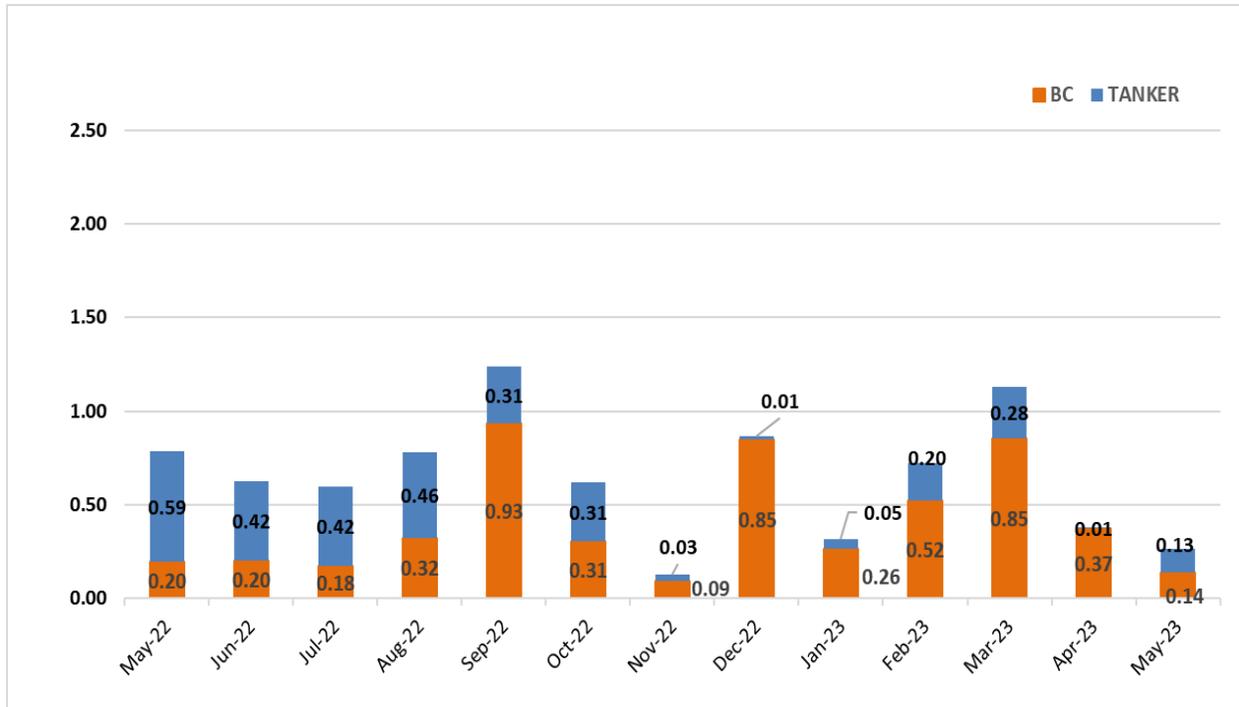
IV. DEMOLITION

2) 해체선 누적현황

| 해체선 총량 | 2021 | | 2022 | | 2022 May | | 2023 May | | | |
|-----------|----------------|------------------|----------------|------------------|----------------|------------------|----------------|--------|------------------|--------|
| | Million DWT | No. of Vessel | Million DWT | No. of Vessel | Million DWT | No. of Vessel | Million DWT | YoY | No. of Vessel | YoY |
| TANKER | 15.66 | 315 | 6.50 | 134 | 0.59 | 13 | 0.13 | -78.4% | 4 | -69.2% |
| *BC | 6.34 | 123 | 4.48 | 63 | 0.20 | 4 | 0.14 | -31.0% | 3 | -25.0% |

*BC incl. General cargo vessel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IV. DEMOLITION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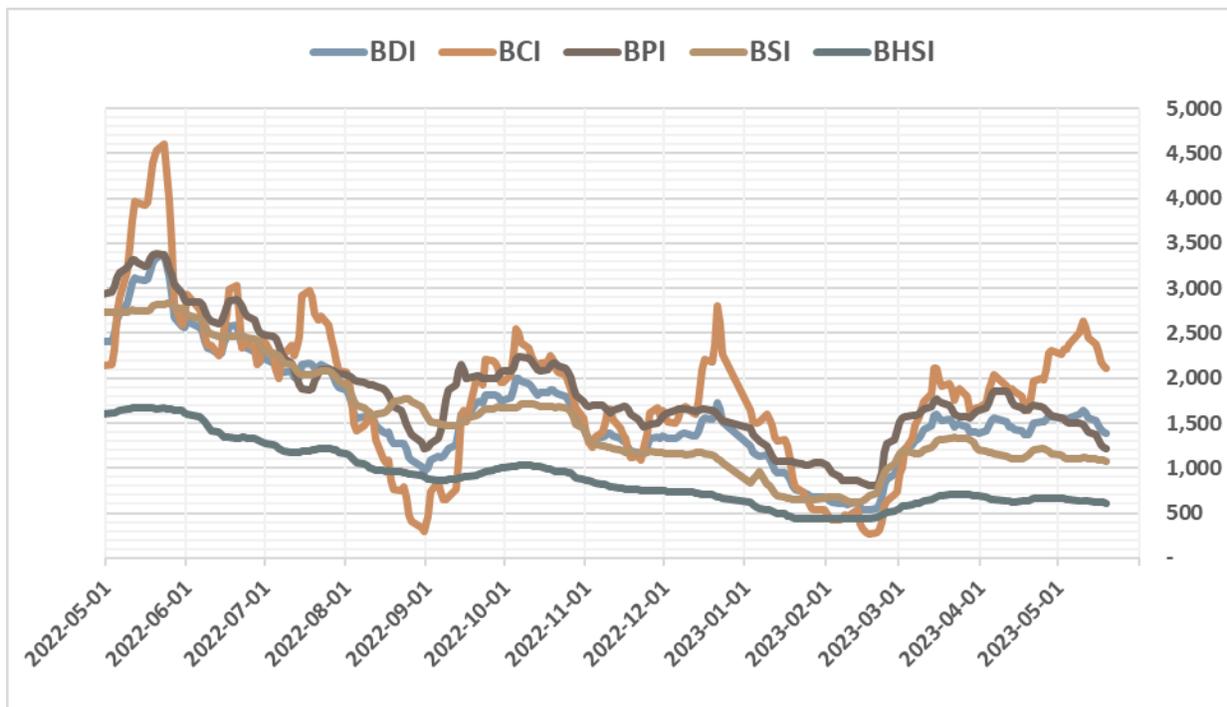
| TYPE | VESSEL | DWT | LDT | BLT | YARD | M/E | PRICE (USD/LDT) | REMARKS |
|------|---------------|--------|-------|------|-------|-----|--------------------|-------------|
| BC | TIAN HE SHU | 37,212 | 7,450 | 1977 | -- | -- | 563 | BANGLADESHI |
| BC | HAI TENG | 33,374 | 7,450 | 1977 | JAPAN | -- | 560 | BANGLADESHI |
| BC | XIANG JIANG 6 | 29,566 | 7,290 | 1977 | JAPAN | -- | 560 | BANGLADESHI |
| CONT | BLUE OCEAN | 14,900 | 4,361 | 1989 | JAPAN | B&W | 625 | BANGLADESHI |



V .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 | 2023-05-19 | 2023-05-12 | CHANGE | 1 Year High | 1 Year Low |
|------|------------|------------|---------|-------------|------------|
| BDI | 1,384 | 1,558 | ▼174.00 | 3,369 | 530 |
| BCI | 2,105 | 2,456 | ▼351.00 | 4,602 | 271 |
| BPI | 1,222 | 1,402 | ▼180.00 | 3,382 | 809 |
| BSI | 1,077 | 1,105 | ▼28.00 | 2,833 | 625 |
| BHSI | 612 | 632 | ▼20.00 | 1,673 | 431 |





V .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 | Singapore | | Rotterdam | | Houston | |
|--------|-----------|--------|-----------|--------|-----------|--------|
| | (USD/Ton) | 전주대비증감 | (USD/Ton) | 전주대비증감 | (USD/Ton) | 전주대비증감 |
| VLSFO | 587.00 | ▲18.00 | 533.00 | ▲4.50 | 537.00 | ▲3.00 |
| MGO | 705.50 | ▲22.00 | 685.50 | ▲20.50 | 721.00 | ▲7.00 |
| LSMGO | 705.50 | ▲22.00 | 685.50 | ▲20.50 | - | - |
| IFO380 | 456.50 | ▲10.50 | 450.50 | ▲17.50 | 414.00 | ▲8.00 |

❖기준일 : 05 월 19 일 기준

3) Exchange Rate

| 구분 | 2023-05-19 | 2023-05-12 | CHANGE |
|--------------|------------|------------|--------|
| 미국 USD | 1332.70 | 1320.30 | ▲12.40 |
| 영국 GBP | 1654.35 | 1651.76 | ▲2.59 |
| 유로 EUR | 1436.12 | 1441.24 | ▼5.12 |
| 중국 CNY | 189.72 | 190.44 | ▼0.72 |
| 일본 JPY (100) | 962.00 | 981.85 | ▼19.85 |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VI. ISSUE & TREND

[시사 상식] 영국 외로움부

영국 정부가 고독사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2018 년 신설한 부처로, 개인의 고독과 고립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것이다.

외로움부는 2017 년 영국 고독문제 대책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 결과(영국 전체 인구의 14%인 900 만 명이 '외롭다'고 답한 내용 등이 담김)에 따른 것으로, 이 조사는 2016 년 극우파 테러로 사망한 조 콕스 전 영국 노동당 하원의원의 유지를 받들어 이뤄진 것이다. 콕스 전 의원은 생전 소외계층을 위해 외로움협회까지 만들면서 관련 움직임에 앞장선 인물로 알려져 있다. 외로움부는 별도 조직 설치 없이 문화·미디어·체육 담당 부처의 장을 외로움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으로 지정해 각종 대책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외로움부는 보건 관련 기관, 기업,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고독사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는 임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외로움에 대한 편견 줄이기'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수립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역시 2023 년 5 월 18 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지역의 주민과 상점을 일종의 게이트키퍼(Gate keeper)로 양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 1 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 년)'을 발표했다. 이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첫 기본계획으로, 이 계획의 목표는 2021 년 기준 전체 사망자 100 명당 1.06 명꼴인 고독사를 2027 년까지 0.85 명으로 20% 줄이는 것이다.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VII. CONTACT DETAILS

| STL GLOBAL CO., LTD. | | | |
|---|---|---|---|
| Marino Hwang(황 재 웅) President T. 070-7771-6400 | | | |
| Fleet & Chartering Operation biz@stlkorea.com | Sancho Kim(김 현 진) Managing Director T. 070-7771-6404 | H.S. Lee(이 현 성) Director T. 070-7771-6412 | |
| | Mike Hong(홍 창 목) Director T. 070-7771-6417 | Henry S.H. Oh(오 수 현) Deputy General Manager T. 070-7771-6402 | |
| | Anna Lee(이 혜 란) Manager T. 070-7771-6403 | Joovi Park(박 주 비) Assistant Manager T. 070-7771-6419 | |
| Agency Operation operation@stlkorea.com | Jennifer Park(박 영 단) Manager T. 070-7771-6407 | Hayden Son(손 호 영) Assistant Manager T. 070-7771-6401 | |
| Ferroalloy Logistics & Warehouse Management ops@stlkorea.com | Jena Ahn(안 지 영) Deputy General Manager T. 070-7771-6405 | Joanne Jin(진 정 식) Manager T. 070-7771-6406 | |
| STL SHIPPING CO., LTD. | | | |
| Sale and Purchase Broking snp@stlkorea.com | Neal S.I. Kwon(권 순 일) President T. 070-7771-6410 | | |
| | Jack Kim(김 종 수) Director T. 070-7771-6411 | Nova Cha(차 혜 정) Team member T. 070-7771-6409 | |
| T. 02-776-0840(Rep.) E. seoul@stlkorea.com W. www.stlkorea.com (04146) 101-13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 | | |
| STL G-TOUR | | Jeonnam Yacht Academy | |
| 기업/일반 단체 항공예약 실장 김 영 하 | T. 1661-8388 T. 070-4800-0151 W. www.stlgtour.com E. tour@stlgtour.com | 보트/요트 면허취득 실장 이 진 행 대리 이 정 택 | T. 061-247-0331 T. 010-2777-4027 W. www.stlyacht.com E. academy@stlyacht.com |